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342

2008년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청소년기 중학교 미술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상 미

청소년기 중학교 미술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to Reinforce Art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상 미

청소년기 중학교 미술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상 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상 미

박 상 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Ⅱ. 청소년기의 이해 4
1. 청소년기의 의미와 특징 4
2.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7

Ⅲ. 중학교 미술교육의 의미와 강화의 필요성 12
1. 미술교육의 의미 12
2. 중학교 미술교육의 강화의 필요성 19
3. 한국·미국·일본의 중학교 미술교과 비교 25
4. 중학교 미술교육의 발전과 개선방향 41

Ⅳ. 결 론 47

참고문헌 50

표 목 차

[표-1] 한국의 제 7차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27
[표-2] 교학사의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내용구성..... 28
[표-3] 한국의 미술교육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 29
[표-4] 한・미・일 미술교과서 집필자 비교..... 30
[표-5] 한국・미국・일본 참고 도판수, 참고작품 예시비율..... 30
[표-6] 한국・미국・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 및 용구 비교..... 31
[표-7] 미국 중학교 미술과 교과서 구성내용..... 36
[표-8] 미국의 미술교육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 37
[표-9] 日本文敎出版의 중학교 미술교과서 내용구성..... 40
[표-10] 일본의 미술교육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 41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to Reinforce Art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Sang-Mi Park
Advisor : Prof . sang-ho park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Everyone has a desire to pursue beauty. To satisfy such aesthetic desire, art exists and as culture has developed, there have been much effort to educate art. Thus, art education is closely related to basic human desire and has developed with much influence on human emotion and life.

Art education helps students frequently contact to artistic works and aesthetic objects, aiming at purifying their emotion, psychological therapy through which mental problems are treated through art, cultivating artistic functions such as making and drawing, and teaching knowledge on art. And art education has a meaning because it helps students, education and society present what they think by cultivating good eyes on the world. A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creativity through making things,

cultivating emotion, and growing persons with healthy and outstanding personality in comparison with other subjects.

Advanced countries consider the 21th century as the era of culture and art, emphasizing art education, but Korean art education does not recognize it and rather distort it. Problems in current art textbooks present an objective of growing well-rounded persons, but it is sorry that students in higher grade tend to avoid and contempt art as education has focused on high scores at entrance examination has been reinforced.

These days, young people have been brought up in the generation in which directions of life and sense of value are confusing under the rapidly-changing society. As school education focusing on entrance examination is stiff and uniformly settled, students dare not attempt to do anything else in addition to preparation for the examination. Such wrong educational system makes adolescents confused and go wild and causes their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uch as violence, depression, anxiety, suicide, resistance and disorder in behaviors, which brought extreme pain to them and society.

In current situation when various adolescents's problems are caused, school education should focus on art education as a key to recovery of their personality to emphasize art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when normal education can not be presented because periods of art class were curtailed. To overcome the problems through art education,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should be recognized and effective programs should be prepared. Then art education can be a powerful supporter for adolesc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오늘날의 사회는 경제·사회·문화 등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현대미술 또한 지속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 조형 언어를 통하여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미술과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적 비판력을 길러주는 것과 미술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개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교육은 타고난 감수성을 더욱 발달, 심화시키는 것 뿐 만아니라 현대미술의 긍정적인 측면들조차 교육적으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술교육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미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미술가를 기르려는 교육과, 미술을 통한 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을 수단시하는 보통 교육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미술을 가르친다는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지만, 후자는 인격 발달을 돕는다는 간접적이고 교양적인 성격을 띤다. 학교교육에서의 미술교육은 하나의 교과로서 전문적인 미술인을 양성하기 보다는 미술을 통한 인격 형성이라는 후자의 성격을 가진다. 즉 미술과 교육은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교과인 것이다.

청소년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성인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기간을 일컬으며 이 기간 동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춘기가 되면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신체변화와 더불어 인지적, 정서적, 성격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시각적인 문화에 익숙한 영상세대이며, 그들 안에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오늘날 학교교육이 전체적으로 잘 조화된 전인적

인간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그렇지만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중학교 미술교과의 비중이 오히려 축소되었다. 또한 중학교 미술교육은 보통교육으로 미술 생산자를 위한 교육이 아닌, 미래의 미술 소비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점이 되는 중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구조나 가치관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정서적인 흥분과 정열로 가득 차 있다. 청소년기는 유년의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정서적, 신체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를 겪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미술교육은 이런 청소년기의 위기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물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고 나아가 사물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인성과 감성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며, 미술적 활동을 통하여 개인이 처한 삶의 어려운 상황을 표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즉 삶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키우는데 기여하며 자기 동일화의 경험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시기에 나타나는 불안, 우울, 자살, 반항장애, 품행장애, 심리적 부적응 등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 한국・미국・일본의 세 나라의 중학교 미술교육의 목적과, 미술교과서의 내용체계에 대해서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을 가져다 줄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에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맞추어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위해 미술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미술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그들을 사회질서와 전통을 무시하고 기성세대에 대항하는 적대적 반항적인 문제아에 불과하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청소년은 사회적·국가적 자원이며 또한 자기 삶의 주체자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동하여 미래에 대해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발달적인 존재로 재인식 되는데 미술교육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선행논문과 관련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이 시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적응을 알고 이해를 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중학교 미술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현 시점에서 갈수록 그 존재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우리의 미술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청소년기 미술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한국·미국·일본의 세 나라의 중학교 미술교육 현황과 교과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발전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청소년기의 이해

1. 청소년기의 의미와 특징

1) 청소년기의 의미

청소년기는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의 연령구분은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10대를 중심으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은 잠재적인 인적자원으로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청소년기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은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이와 함께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에게 요구되는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제2의 탄생기라 할 수 있다. 신체적 변화와 함께 내적 세계에 대하여 차츰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자아를 수립하는 정신적 격동기를 경험한다. 또한 자의식, 자존심, 자기주장과 독립심이 강해져 권위에 반항하며, 갈등을 겪는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청소년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의하여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성인들은 자신의 청소년기와 비교하여 오늘의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세대에 비하여 형편없고 무례한 세대라고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인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고정관념은 청소년들을 억압하거나 무한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게 되고, 그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왜곡해 이해하고 지도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 특성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 독자적인 발달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2) 청소년기의 특징

(1) 신체적 · 성적 성숙의 발달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신체적 발달은 성적으로 성숙하는 것으로 급속한 신체의 변화에 의한 생식능력의 획득이다. 성장급등 현상은 신장과 체중뿐만 아니라 근육, 골격, 신경, 얼굴, 내장, 생식기관 등에도 나타난다. 이때 제2차 성징인 신체 생리현상이 남녀에 따라 완성되어진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소년들은 신장이 확대되고 근육이 발달함으로써 어른의 신체적 형태로 이행된다. 이러한 성장은 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의 양면적 반응을 보이게 한다. 한편 이 시기 소녀들은 남자들 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 키가 크거나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외모가 부드럽고 완만한 형태로 이행된다. 성적 성숙을 동반하는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발달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경험이므로 당황하고 불안과 긴장감에 휩싸이게 된다.

(2) 인지적 발달 능력의 확대

청소년 전기에는 육체적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새로운 사고방식과 인지적 능력이 확대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동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즉흥적인 사고 체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수준 높게 사고하는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넘어서 죽음,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미래사회의 전망 등과 같은 추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특유의 독특한 사고와 행동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은 독특한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야망을 펼치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현실 비판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전통적 권위에 반항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현실이 자신의 이상과 일치

하지 않을 때는 좌절과 분노와 함께 가치관 갈등을 겪으면서 반항, 저항, 일탈 행위까지 나타나게 된다.

(3)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하다. 다른 어느 발달단계보다도 변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성취해야할 발달과제가 많아 여러가지 적응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여러 측면에서 급격히 일어나는 변화와 발달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갈등하게 된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낙관적, 비관적 감정이 교차하기도 하고 자부심과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기도 한다. 극과 극을 달리는 자기 갈등적이고 모순된 감정을 보임으로써 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의존과 독립, 무관심과 열성, 순종과 반항, 환희와 우울, 우월감과 열등감, 희망과 절망, 자기애와 자기혐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이상추구와 현실타협 등의 양극의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단시간 내에 격렬한 변화를 자아낸다.

(4) 인간관계 확대의 기회

청소년기에는 자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성장 발달하게 된다. 독립을 요구하는 청소년기에는 자유롭고 상호 대등한 수평적 인간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친구 관계가 중요시된다. 즉 서로 뜻이 같고 자신의 요구나 고민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면서 깊이 사귈 수 있는 친구를 요구한다. 자기 또래의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가능한 그들의 행동 기준에 동조하여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친구 관계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면서 그들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시키고 올바른 대인관계와

사회적인 통찰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5) 자아정체감이 형성

청소년기는 '자기에 대한 새로운 탐색기'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적인 세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그 속에서 자아를 찾아 독자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해가며 자신의 본질적인 인격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히는 시기이다.

에릭슨(Erikson)[1]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 자아정체감[2] 형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자아정체성은 청소년기에 시작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진다. 즉, 부모나 선생님, 친구들의 감정과 태도, 가치관,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만의 독특한 총체로 통합함에 따라 정체감이 형성되어 간다. 청소년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 자주적인 선택을 하기 위하여 부모의 가치와 규범을 재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체감 형성의 과정은 아동기에 그 뿌리를 두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지만 특히 청소년기 후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2.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적응'이란 개체가 환경에 대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고 개인이 대인관계나 회의 규범에 있어서 환경에 적응하고 통제하여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며, 부적응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하고 부조화를 이루는 상태로서, 개인의 욕구·감정·사상 등이 사회의 규범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고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관계 또는 상호적응에 불균형이 이루어져 환경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는 일생 중 가장 과도기적인 발달특성을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

---

1) 독일 출생의 미국 정신분석학자. 인간 형성을 문화·사회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특히 청년기의 '정체성 위기' 해결방법 여하에 따라서 역사의 양식을 창조하는 측면을 밝혀냈다. 정체성 개념에 의해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2) 자아정체감-자신을 기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실체로 인식하는 개인의 느낌

년들의 행동양식이 심리적인 장애로 인한 것인지 혹은 발달과정상 나타나는 불안정한 특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적응이나 불완전한 적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적응'이란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욕구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환경이나 조건과 잘 조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이 중심이 되고 있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경우, 일정한 수준에서 이탈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공상이나 불안한 생각 등으로 소속집단이나 가정,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행동과 자신의 개발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부적응은 대개 한가지 원인에 의한 것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의 사회화 과정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좀더 성장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같은 또래의 집합체인 학교에서 사회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 행동을 겪게 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고립, 등교거부 행동 등을 보인다. 정서적, 성격적 장애로 인한 행동문제에는 공격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언어장애, 자기비하와 자기과시적 행동, 비사회적 행동 등이 해당된다.

1) 불안 · 우울장애 현상

불안은 정상인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현상이다. 불안은 개인이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양식으로 두려움, 긴장감과 같은 정서적 반응과 심장박동, 발한, 혈압상승 등의 신체적 반응을 동반한다. 또한 또래의 부정적인 평가, 사회적 거부, 실패경험은 청소년기 정상적인 공포나 두려움이 된다. 청소년기 일반화된 불안장애[3]는 사소한 일상사에 대하여 불안, 근심, 걱정,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통제가 되

3) 일반화된 불안장애-여러가지 대상이나 상황 혹은 활동에 대한 빈번하고 극심한 불안 또는 걱정을 나타낸다.

지 않고 신체적 반응(근육긴장, 안절부절, 수면장애, 초조, 과민)등의 현상을 나타낸다.

청소년기 우울감은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에 잘 적응하다가 일시적으로 기분이 침체되고 우울해 질 수 있다. 우울장애의 발병은 빠르면 아동기부터 시작되지만, 14세경까지는 그리 높지 않다가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자의 개인차로 인해 많이 달라진다. 또한 청소년기 발달 특성상 우울한 기분이나 우울증상이 흔히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전국적 역학조사에 따르면 15~24세 청소년기 집단에서 경증이상의 우울증 발생률은 21%이고, 이중 중증이상의 우울증세는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중 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우울증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남학생의 18~35%정도와 여학생의 20~48%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절반 정도는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수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청소년기 우울증은 부정적인 대인관계 기술, 인지적 왜곡, 자기에 대한 관점, 통제에 대한 신념, 자기조절 등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2) 충동적인 자살행동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동(자살행동), 끊으려는 행동(자살시도), 끊으려는 생각(자살의도)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모든 자살행동이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청소년기 자살은 어떤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행동의 앞뒤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지 않고, 주위 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깊은 생각 없이 행동함으로써 자살행동을 통해 자신의 절망이나 좌절,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5)]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15.9%로 교통

---

4) 조성진 등, [한국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증상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2001, p.627-639
5)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 p.47-49

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이는 1992년 9.4%에 비해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6]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서구의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가정 관련요인을 들 수 있다. 가족생활의 경험 즉, 가족으로부터의 학대, 가정불화, 결손가정, 가족의 질병, 경제적 불안, 부모와의 불완전한 애착, 가정의 유대와 정서적지지 등의 심리적 요인과 가정의 구조와 기능적 요인, 가족관계요인 등이 구체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학교생활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 학업성적 저조로 인한 좌절감, 무력감, 소외감 등이 중요한 자살의 충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반항장애, 품행장애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는 부모, 교사, 이웃의 권위 인물에 대하여 반복적, 거부적, 도전적, 불복종적, 적대적 언사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공격, 재산의 파괴, 사기 또는 도둑질, 심각한 규칙 위반처럼 반사회적, 도전적 행위를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할 경우를 말한다.

품행장애는 행동의 반복과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이에 맞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율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동이 최소한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품행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고 18세 이하 남자의 6~16%, 여자의 2~9%에서 나타난다고 추정된다. 반항장애나 품행장애의 초기의 시작은 대부분 가정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어머니-자녀관계와 아버지-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의 중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7]와 함께 동시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반항장애와 과잉행동장애로 함께 진단된 아동은 반항장애로만 진단된 아동에 비해 평균 3년 반 정도 빠른 시기에 품행장애로 발전했고, 청소년기나 성인 때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개입하는

6) 서동구, [우리나라 자살 사망의 현황과 정신보건센터의 역할]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프로그램 워크샵 자료집, 2003, p.35

7)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충동적・무절제・과다행동이 나타나면서 소근육 협응이 안 되고, 학습장애를 보이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질병.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는 또한 우울증과도 자주 연결되며, 품행장애와 불안장애와의 관련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4) 학교부적응

학교부적응이란 청소년의 다양한 부적응 행동 특성들이 학교생활이라는 하나의 사회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부적응 행동 특성이 학교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만족되지 못하므로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인간의 일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를 전후로 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한 인간이 얼마나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기로서 특히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지적, 지능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Ⅲ. 중학교 미술교육의 의미와 강화의 필요성

1. 미술교육의 의미

교육이란 세계를 변화하려는 의식적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인간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교육으로는 외적(外的)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유익하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인간의 내적이고 심정적(心情的)인 평정을 변화 시킬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바람직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작적인 기능을 지니며,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나 기술의 습득만이 아닌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전화시키는 작용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인격을 형성하는 작용이 되어야 한다.

미술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등 내면에 관련된 것을 시각예술, 공간예술, 조형예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미술의 특징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며, 한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술은 인간의 경험의 폭을 확장한다. 미적 경험을 선택하고, 탐색하고,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통합, 해결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술은 삶에 질서를 부여한다. 일상생활 속의 무질서를 질서 있게 배열하는 일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색·선·형·공간과 질감의 배열로부터 유도되는 감각적인 경험의 기쁨을 제공한다.

미술교육은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논리적 인식이나 과학적 사고력에 치중함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심리적, 결핍을 막고 창조성을 계발하고 심미감을 육성하여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미술교육을 미술만의 독자적인 성격과 함께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고찰하여 보면, 미의 세계를 조형성을 통해 시각화시켜 표현하고 감상하는 의미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신장시키고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의미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또한 인간의 정서를 함양시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개성과 창의성을 신장시켜 줌으로써 좌뇌와 우뇌의 균형적인 발달과 자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미술교육은 인간의 감성을 통하여 영혼과 정신을 조형화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여 전인적인 인간교육에 가장 깊이 작용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미술을 통하여 인간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풍부한 감성의 잠재력을 살펴 밝고 힘찬 활력을 회복해야 하며 인간의 모든 시지각의 잠재력을 개발해야 미술 교육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9]

미술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격이나 목표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질주의적 입장[10]과 실용주의적 입장[11]이 그것이다(Eisner, 1972)[12] 전자의 경우는 미술 그 자체의 본질성을 중시하여 미술 활동의 제작 기능과 감상 및 이해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어 미술 제작자로서 혹은 감상자로서 미술적 표현 능력과 미적인 것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감상능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미술을 통한 인간 형성을 강조함으로써 미술 교육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궁국적인 목적은 미술을 통해 심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어 '인간형성'이라든가 '창조성'등이 미술 그 자체보다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다.

미술교육은 미술의 본질과 교육의 본질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데, 미술의 본질은 미적 체험에 있으며 이는 체험의 주체인 자아가 체험의 대상인 작품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미술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미적 인간, 심미적 인간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름다움을 잘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면 심미적 인간 육성에 미술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미술교육은 미술과 교육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미술교육은 미술만이 육성시킬 수 있는 예술적인 면의 인간 가능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면서도 교육적인 방법과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교육

---

8) 김영학, [미술교육] 대원도서, 1992, p.12-13
9) 김춘일,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1992, p.17
10)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의 유지・발전・전달과 실현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와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 교육사조.
11) 미국의 철학정신을 반영하는 사조이며, 실제(practice)에 관심을 둔다. 행위의 실제(실험적인 과학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와 사회의 발전과 문화의 진보에 공헌하는 유용성이나 적용 가능성으로의 실제가 있다.
12) 김춘일, [중등미술교육론] 2002, p.79

을 받는 대상이나 미술교육을 받으려는 목적에 따라 미술교육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학교 교육 속에서의 미술교육은 미술과 교육의 양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 교과목이 합리적, 논리적, 수리적, 분석적인 좌뇌의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면 미술은 종합적, 공간적, 직관적, 총체적, 구체적인 기능의 우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교과로서 미술교육을 좌 우뇌의 균형있는 발달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술의 사회적, 역사적 측면의 접근과 총체적 종합적 사고과정은 타 교과의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13] 그만큼 미술교육은 타 교과로 대치할 수 없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미술이 인간의 느낌, 감정, 생각, 등의 정신적인 면을 다루는 교과라는 점에서 인성발달에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교과이다. 또한 다른 교과목과 마차가지로 사물을 주관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관찰하도록 이끌며, 추상적인 사고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상징성과 의미성[14]을 갖는다.

미술교육의 특성을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형식면에서는 조형성을 강조한다. 즉 미술 행위의 기본으로, 형태를 낳게 하는 필연적인 행위이다. 조형요소를 구성하여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 재료나 용구를 다루는 기능과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용면에서는 창의성, 잠재되어 있던 감성을 최대한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잠재력이 형태에 질서를 부여하고 구체화하여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창조에는 개인의 감정과 사고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 점에서 개성의 신장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형식과 내용 그리고 감상은 정서성을 들 수 있다. 정서성은 미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시각적 경험에 의하여 미적 정서를 기르고 미적 가치관을 확립하며, 나아가 원만한 인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13) 김상랑. [미술교육학개론] 서울 미진사, 1992, p.16
14) 상게서, p.19

1) 미술교육의 목적

미술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작품을 통해 자아의 과거·현재 세계, 상상한 미래의 현실, 그리고 개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규범 등에 대한 특별한 지식, 통찰력과 이해를 높이는데 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미술교육은 타인이 만든 작품에 내재된 생각과 개념을 연관시키고, 그들이 사는 지역의 작품과 다른 지역, 문화권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의 목표는 학생들 자신들이 만든 작품과 다른 학생들이 현실의 경험에서 유래한 중요한 작품들과 개념을 연결시키고 이를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안과 학교생활 밖으로 연장되는 그들의 삶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미술에 내재된 지식과 통찰력, 이해력을 글로 서술하면서 표현하게 하는 데에 있다. 또한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 할 수 있는 심미적 태도와 상상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 주며,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또한 동기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하는 욕구를 북돋아주고 탐색활동을 통하여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통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과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한다. 미술교육은 다른 교과목처럼 주관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관찰하도록 이끌며, 추상적인 사고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상징성과 의미성을 갖는다. 미술교육에 있어 창의성은 주로 활동과정에서 개개인의 생각이나 자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의 유연성, 모험성, 고유성, 다양성, 독창성을 의미한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미술교육은 아동중심 미술교육, 또는 학과중심미술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제간 교육, 다문화 미술교육, 미술관 교육, 미학교육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술을 왜 배우는지, 미술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미술교육 목적의 설정은 교육목표와 내용의 선정, 교육과정의 개발 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미술교육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개발이 그러하듯이 청소년

교육 목적의 설정도 미술교과의 본질에 적합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심리에 적합해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미술교육의 목적을 설정할 때는 미술이 갖는 특성에 목적이 부합되어야 하고 학습자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알맞아야 하므로 학습자의 심리에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합되는 미술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적안목의 육성

안목이라는 말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수많은 선택 속에는 선택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을 안목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은 사물을 봄으로서 느낌을 얻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생활 주변에 있는 환경과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관찰하고 느끼는 일은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려면 우선 볼 수 있는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힘이 있어야 하고 보는 힘이 있을 때 사물은 항상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보는 힘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미술은 대상이 없어도 상상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것을 나타냄으로써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미술에서는 눈앞의 구체적인 대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상상이나 관념 속에서 떠오른 현상이나 이미지까지도 본다고 할 수 있다. 미적 안목은 미술표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술을 이해, 감상하며 비평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자아표현을 통해서 개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경험하여 이해하면서 종합적인 작용을 하여 서서히 육성된다.

제반의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삶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시각 환경을 미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미적 안목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그에 따른 매체가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미적인 안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이해, 표현, 감상의 통합적인 지도가 전개되어 교사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수법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조형능력의 신장

조형능력이란 형(刑)과 미(美)를 가시화 시키고 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구체화 시켜 공간에 형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런 조형능력은 시각적 환경에서 질서와 조화, 조형요소와 원리 등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미술작품에서는 미적질서와 미술형식을 찾고 이해하고 즐기는데서 재료를 가지고 직접 조형작업을 하면서 길러지는 것이다.

조형능력은 미술교과에서 주로 다뤄지며 미술작품을 창의적이거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표현기능이라는 좁은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환경의 시각적 특성을 이해하여 그것을 개선하는 능력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능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미적안목보다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전의 교육방법들처럼 반복에 의한 석고나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연습을 통해 길러서는 안된다. 모든 미술교육은 미적안목이나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더불어 조형능력도 동시에 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창의성의 개발

창의성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창의력과 독창력, 창조적 재능 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줌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기존의 지식이나 생각들을 새롭게 조화시키는 태도를 터득하는 것이다. 또한 경험의 재생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 방법과 태도를 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출이나 새로운 유형의 사고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그동안의 창의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창의성은 '새로움'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의 사고과정'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술에 있어서 창조는 상상의 기능이며, 시대나 개인에 따른 가변성을 지닌 주관적인 것이다. 미술활동은 창의성교육의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미술수업과정에서 실제 창의적 활동에 가담하도록 하여 창의적 활동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로웬펠드[15]는 미술을 통한 인간교육을 강조하면서 미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에 의한 창의성을 개발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창조활동이 보다 나은 행동을 하기 위해 새로운 통찰력과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창조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창조행위 그 자체로 본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은 먼저 학습자에게 가르쳐야할 미술교육 내용이 잘 선정되고 그것을 교사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며,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때 효율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4) 감성의 함양

감성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감각을 매개로 하여 받아들이는 능력'[16]으로 정의된다. 감성이라는 능력은 '정의상 감정, 또는 느낌' 즉 의식적으로 느껴진 경험의 성질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소산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이처럼 감성은 감정의 능력으로 통증이나 쾌감, 공포감 같은 특정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능력을 뜻한다.[17]

감성지능은 예술교육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특히 미술은 자기표현과 감상 등을 통해 감성지능을 개발 할 수 있다. 감성지능을 높이는데 미술교육의 기본 관점은 학습자에게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술을 통한 감성의 함양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한다. 즉, 일시적인 감정 표현을 자제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자신의 정서를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서의 성장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듯 아동 및 청소년기의 감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교육은 오늘날의 인간성 상실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놓고 볼 때, 전인교육 측면에서는 그 교육적 가치가 크다.

---

15) 로웰펠드(V. Lowenfeld) : 서구 미술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미술교육학 자로서 심리학자 겸 화가이며, 수많은 저술활동과 강의 등으로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미술교육이론을 정립하였다. 아동중심・창의성 중심・과정중심 미술교육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16) 막스 뮐러, 알로이스 할더 강성위역, [철학소사전], 이문출판사, 1988, p.14
17) 정대현 외, [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p.24-30

2. 중학교 미술교육 강화의 필요성

예술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교육적 가치이다. 즉 예술은 근본적으로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술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문화수단이다'라고 말 할 때 이는 예술이 대중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18] 현대사회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인간화가 되어 인간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청소년기 미술에 대한 이해는 거의 무시되어 왔다. 쉴러(F. Schiller)[19]는 미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미가 인간의 보다 높은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을 조화롭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미와 인간이 화합한다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만이 아닌 온전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0]

청소년기는 일생 중 미적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이자 개별적인 발달이 뚜렷한 기간이다. 이 또래의 욕구는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속 성장시켜, 가능성을 펼치도록 돕고, 청소년의 사고와 정서, 환경에 대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술적 체험에 결손이 생기면 메마른 정서와 난무하는 폭력, 대중오락 음악과 선정적인 광고의 범람 등의 사회 병리 현상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미술교육의 기회의 부족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상태인 것이다.

미술활동은 학교교육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들은 스케치하고, 색칠하며, 무엇인가를 만드는 미술활동과 함께 주변 환경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한데 어울리게 하여 새롭고 의미 있는 전체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요소들을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그림이나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있는가를

---

18) 한국교원대학교 예술교육 연구소, [21세기 예술교육의 위상과 역할], 제5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1997, p.100

19) 괴테와 함께 같은 세대를 살면서 독일의 질풍노도운동과 고전주의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이며 철학자, 미학자이다.

20) 김혜숙, [미술과 교육]: [미술 교육학원론], 1998, p.38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있어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이다. 이에 미술교육의 역할은 청소년이 사회에 기여하고 잘 적응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교사에게 문제의 답과 방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답을 찾고 발견하는 능력이므로, 미술활동 경험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과 교육, 사회에 자아표현 방법을 제고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며 개성과 창의성, 아름다움과 즐거움 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조형 활동 경험을 통하여 창의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건전하고 훌륭한 학생으로서 성장하게 하는데 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교과보다 크다고 하겠다.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자아표현 방법의 기회를 제공

청소년기의 미술활동의 가장 큰 교육적 의미는 그 행위가 자아표현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즉, 미술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글로써 표현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창작하는 미술을 통해서 복잡한 생각이나 힘든 주제를 보다 만족스럽게 보다 쉽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그런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그림을 통해 자신에게 쌓여있던 내면의 감정들을 표출해 냄으로써 정서를 순화하고 함양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미술은 강력한 자아표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미술교육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자아표현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미술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전체를 표현하고 개성과 감정을 표현하며, 환경과 세계, 그리고 그 자신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표현을 통해 그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남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게 된다.[21]

---

21) 이규선 외 전게서, p.16-19

2) 시지각의 중요성 인식

인간 학습의 약 80%는 시각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술교육은 시각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눈의 교육을 통해 시지각과 미적 안목을 길러 환경에서 시각적 관계를 바로 보고 느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과, '환경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길러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22] 시지각은 시각에 의한 지각을 말하며, 사진기처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기록하는 것과 같은 기계적인 작용이 아닌 대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인간 나름의 독특한 힘이며,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수용하여 인간 나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른하임(R. Amheim)[23]은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고 빠른 두꺼운 기계문명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원시인에게 흔히 볼 수 있고,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생동감과 원초적인 '감각의 힘'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들의 눈이 측정, 확인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결핍되어 가고, 우리들이 본 것에서 의미를 발견해내는 능력은 결여되어 간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우리는 실재 그대로의 시각을 전해주는 사물에 접했을 때 어리둥절하고 당황해하며, 무언가 좀 더 친근한 언어적 매개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24] 그러므로 눈의 교육을 통해 시지각과 미적 안목을 길러 환경에서 시각적 관계를 바로 보고 느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술활동은 '보는 것'과 '나타내는 것'으로 나누어지지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조형적인 표현활동의 행위에서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나타내는 것도 잘 될 것이며, 나타낼 수 있는 학생은 잘 볼 수 있는 학생일 것이다. 학습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미술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지각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

22)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전게서, p.27
23) 루돌프 아른하임(Rudolph Arnheim): 독일 미술비평가・예술심리학자
24) R. Amheim, 전게서. p.5

3) 좌뇌, 우뇌의 균형있는 발달

인간의 대뇌는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뇌 전체의 80%에 해당된다. 대뇌는 좌우 두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반쪽은 좌뇌(왼쪽)와 우뇌(오른쪽)라고 부른다. 좌뇌와 우뇌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하는 일도 다르다. 좌뇌는 언어적이고 분석적이며, 상징적, 추상적, 시간적, 합리적 ,논리적, 순차적이다. 이에 비해 우뇌는 종합적이고 공간적이며, 비언어적, 구체적, 비시각적, 비합리적, 직관적, 총체적이다.[25]

에드워즈[26]는 그의 저서 <Drawing on the Right Side of the Brain>을 통해서 대상을 우뇌로 보게 함으로써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리게 하는 방법을 연구 하였다. 사람들이 청소년 이후에 미술표현능력이 거의 발달하지 않고 어린 시절보다 오히려 조잡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좌뇌 주도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다. 몇 가지 프로그램에 의한 시도를 통해 우뇌로 전환하면 즉, 보는 방법을 전환하면 누구나 잘 그리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교육에서의 문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좌뇌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뇌의 발달이 쉽지가 않다. 어떤 교과던지 한 쪽 두뇌의 작용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좌뇌와 우뇌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뇌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곧 미술교육이 조화로운 인간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뇌교육을 발달시키는데 뒷받침 할 수 있다.

4) 개성과 창의성을 육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존중 받아야 할 것은 개성이며, 미래사회에 가장 필요한 인간성의 특징은 바로 창의성이다. 미술은 이런 개성과 창의성을 육성하는데 효과적인 교과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은 미술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 상상, 감정, 정서, 성격 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으며, 미술교육은 개성있

---

25) 에드워즈 강은엽 역,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그리기], 크로바 출판사, 1986, p.51
26) 베티 에드워즈(Betty Edwards): 회화를 전공하였으며, UCLA에서 미술학, 교육학과 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는 표현의 장이 되어주고, 표현을 자극하고 격려해 주며, 그 어떤 교과보다 학습자를 자유롭게 한다. 바람직한 미술활동에서 꼭 필요한 자유는 개인생활의 전제조건인 생각과 행동을 자유와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다. 인간의 활동은 무에서 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외계를 통하여 그것을 어떤식으로 관찰하고 독창적으로 상상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창조 교육에서 청소년들이 유의할 점은 너무 고도의 창조 의욕이나 창의성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활동이 경화되어 표현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두려워 할 염려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 표현의 질서, 재료의 발견 등을 통하여 새롭고, 자기의 주관적 생각으로 발전시켜 표현해 낼 때, 이를 창조적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곧 작은 발전이자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미술의 주제는 미술 경험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발달시키는 수단으로 생각되어야 하며, 미리 결정된 소재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은 이상과 표현 욕구, 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그 자신에 대한 태도, 희망적인 생각,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태도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제의 근본 자료로 한다. 또한, 주제는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에 학생을 관련시키는 수단이 고려되어야하며, 표현을 위한 필요에서 발생해야 한다. 미술교사는 포부와 인내, 자아에 대한 비판, 낭만과 모험에 대한 욕구 등 개별적인 개성들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미적기교를 발달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실험적 태도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를 최상으로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27]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구체화하는 창조력은 대행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최고 정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창조성이 인간성의 본질에 내재해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획일화가 아닌 주체적 인간화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28] 미술활동은 기존의 질서와 포용의 범위가 있다. 따라서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여건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7) 김민곤, [어린이 조형활동 창조], 미술세계, 1985, p.153
28) 한명희, [창조성 교육],[새 교육] 대한교육연합회, 1986, 서울, p.91-93

5)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제공

모든 미술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그 생명이다. 예로부터 미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진·선·미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플라톤[29]은 미와 선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칼로카가티아(kalokagathia: 아름답고 선한 것)라는 이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대는 미와 동떨어진 작품들이 많고 개념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쉴러(Schiller)는 미술을 '심미적 놀이'라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신체적 성질인 감성적 본능(Instinct Sensible)과 지적인 성질인 형식적 본능(Instinct Formal)으로 나누고 이들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쉴러의 견해는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놀이 또한 유희의 욕구가 있으며 미술은 이러한 욕구를 차원을 높여서 해소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미술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미적 안목을 기르고 한편으로 미술 표현과 이해, 감상을 통하여 즐거움과 재미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이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윤활유와 청량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6) 미술활동을 통한 인성 교양

미술교육의 본질은 인간 교육이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가장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미술교육을 좀더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과 인간의 발달 이론과 실제에 관한 것, 성격 및 정신에 관한 것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일은 미술교육의 시기와 미술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된다. 미술교육은 청소년의 지식적인 학습에만 관심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적 적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즉, 미술 교육을 통해 인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인성의 구성요인은 무엇이며, 초기의 인성 발달이 후기의 적응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다.

---

29) Platon: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형이상학의 수립자, 소크라테스만이 진정한 철학자라고 생각하였다. 영원불변의 개념인 이데아(idea)를 통해 존재의 근원을 밝히고자 했다.

마음이 선해지고 착하고 순해진다는 것은 곧 인성이 교양 되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미술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미술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심성을 정화 내지 순화한다. 이는 미술 등의 모든 예술적 활동이 인간의 심성 또는 감정을 맑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 중 미술은 생각을 일깨워 주고 상상의 폭을 넓혀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청소년들의 인성 교양에 기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물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한 체험적 경험은 인생을 통해 느끼게 되는 많은 경험 못지않게 인성과 감성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한국 · 미국 · 일본의 중학교 미술교과 비교

1) 한국

(1) 한국의 중학교 미술과의 교육목표

한국의 미술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보급하는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이다. 학교와 지역의 특성이 존중 · 발휘되는 지방분권적 성격이 미미하고, 교과서나 대학입시 위주의 학교 미술교육이 수행되고 있다. 미술장르중심, 표현방법중심에 치우쳐져 '미술과 생활'이라는 영역을 새로이 만들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고 시도했으나, 최근 미술의 다양한 변화와는 동 떨어지는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해가 미흡하여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미술교육은 회화나 조각의 조형 기술 중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예술을 폭넓게 이해하고 향유하기 위한 '교양적' 성격을 경시함으로써 조형의 근본인 미학적 사고나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30]

한국 중학교 미술교육의 목표점은 미술품 감상능력과 창의적인 표현, 심미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31] 미술과 수업을 통해 미적능력을 기르고 인간의 심미적인

30)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한국 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p.24

태도를 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조형요소와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미술표현의 기본원리를 아는 것과, 감상활동에 비중을 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상활동과 표현활동을 통한 전인적 인격을 기르는 것이다.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초-중-고등학교 목표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개발하여 심미적 태도를 함양 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총괄목표는 심동적 측면에서 표현 및 감상능력, 인지적 측면의 창의성, 정의적 측면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6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총괄목표와 방향을 같이한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 영역과 관련된 3개항의 하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부여하게 해 주며,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둘째, 동기 유발을 통해 나타나고자 하는 욕구를 북 돋워 주고 체계적인 탐구활동과 능동적인 표현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도록 하며,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 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교육의 목적에 따라 교과서의 구성 역시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미적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졌다. '미적체험'은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현'은 의도한 것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고, '감상'은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시대와 양식에 따른 미술품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며 미술 문화를 존중하도록 구성되어있다.

---

31)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Ⅳ],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159-160

(2) 교육과정

교육과정 구성방침은 사회적 변화와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길러주는 데 두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10학년)과 선택중심교육과정(11학년, 12학년)체제를 도입하였다. 중학교 1·2학년은 연34주로 주당 1시간이며 3학년은 주당 2시간 6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1학년은 연36주로 주당 1시간이며, 2·3학년의 경우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3) 한국 미술교과서의 구성체제와 특징

영역	중학교 1,2,3
미적체험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이해 미술과 생활과의 관계 이해
표현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 재료와 용구
감상	서로의 작품 감상 미술품 감상

[표-1]한국의 제 7차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한국의 교과서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32]

한국의 중학교 미술과 1·2·3학년의 미술교과 구성내용 중 미적체험영역에서는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이해, 미술과 생활과의 관계 이해, 표현영역은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재료와 용구 4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뉘며 감상영역은 서로의 작품 감상과 미술품감상으로 나뉘어 진다.

32) 노영자, 이인숙, [중학교 미술 1] 교학사, 2000

	1학년	2학년	3학년
미적 체험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환경을 닮은 조형물	미술과 문화
	자연에서 조형으로	미술의 활용	생활속에 깃든 아름다움
	생활속의 미술	생활과 색채	미래와 환경미술
	자연과 생활속의 색채	쾌적한 생활환경	
표현	우리학급꾸미기		
	선으로 그리기	친근감 있는 사물의 표현	눈으로 살펴서
	다양한 표현기법	새로운 재료와 표현방법	여러 가지 표현재료와 기법
	판으로 찍기	판으로 찌기	판으로 찍기
	정물의 표현	정물의 표현	
	사물을 새로운 눈으로	비쳐 보이는 세상	
	생활주변의 풍경	풍경그리기	풍경의 아름다움
	수묵으로그리기	먹과 채색의 만남	수묵화와 채색화
	일상생활의 표현	다양한 인물의 표현	개성있는 인물표현
	추상표현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평면에서 입체로, 행위로
	입체로 나타내기	입체로 나타내기	입체의 아름다움
	색의 기본		
	형태의 관찰과 단순화	자연에서 디자인으로	평면과 입체구성
	문자역할을 하는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에니메이션	에니메이션 만들기	
	생활용품 만들기		
	흙과 불의 조화	여러가지 재료로 만들기	물들여 꾸미기
		전통공예와 공업제품	전통공예품의 입사, 상감, 자개 장식 기법
	생활속의 서예	서예	서예
감상	보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미술품 감상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미술의 흐름과 감상	우리나라 미술과 동양 미술의 영향	미술문화유상의 이해
부록	학습정리	학습정리	학습정리
	인터넷에서 박물관, 미술관 찾기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을 찾아서	
	교과서에 나온 미술 인명사전	교과서에서 나온 미술 인명 사전	교과서에 나온 미술 인명사전
	교과서에 나온 미술 용어 해설	교과서에 나온 미술용어 해설	교과서에 나온 미술용어 해설

[표-2]교학사의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내용구성

각 하위영역마다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제시하는 문장과 질문이 들어있어 학생의 동기유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토의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

다. 교과서 뒷면에서 학습정리 및 인터넷에서 박물관·미술관 찾기, 교과서에서 나온 미술 인명사전이라는 내용으로 꾸며져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학습정리'에는 미술영역을 회화, 판화, 조소, 디자인, 공예, 감상의 6개 단락으로 나눠서 주요내용의 요점정리 및 재료와 용구에 대해 도판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인터넷 미술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수업보다 더 폭넓은 관련정보를 탐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매체와 정보를 도구나 자료로 이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감상을 할 수 있게 하고 표현력을 길러준다.

미술교육 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이트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에듀넷을 들 수 있다.

에듀넷(교육부에서 운영)	
교수학습센터 (교사를 위한)	· 교사의 지식교류, 학년교과별 수업자료, · 국내외 교육동향, 교원연수, 학급경영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학습센터 (학생·학부모를 위한)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10학년까지 학년별 교과과정을 수록하여 단원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표 3]한국의 미술교육 대표적인 사이트

이 외에도 맹범호의 미술교육 자료실은 미술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미술수업에 필요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학교 미술교육과정을 토대로 하여 적용시킨 자료가 많으며, 전북 중등미술교육연구회는 전국의 중등미술교사의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Howcolor는 현직 교사가 운영하는 곳으로서 미술 실기강좌, 세계명작, 학생작품 감상, 숙제자료, 교과학습, 문제, 시험자료, 교과위주가 아닌 전체적 흐름의 미술계 상식을 알아볼 수 있다. ART plus는 용문중학교가 운영하는 미술교육 사이트로 가장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술교실 등 인터넷을 통한 미술교육은 편리하고 다양한 기술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의 미술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

교과서의 집필자를 살펴보면,

구분	저자	집필인원	감수인원	출판사명
한국	노영자, 이인숙	2	·	교학사
미국	Gene Mittler, Rosalind Ragang	2	16	Glencoe/McGraw-Hill
일본		34	3	

[표-4]한·미·일 미술교과서 집필자 비교

미국은 한국과 같이 집필자 수는 2명이지만 감수인원이 많고, 미술교육과, 교사, 각 파트별 전문가 등 미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편집자문위원(Edatorial Consultants)과 감수자(Contributors/Reviewers)[33]로 나뉘어져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집필자의 이름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 전공이나 직업을 알 수는 없지만 집필자의 수가 무려 34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미술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자가 참여했으리라 여겨진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미술교육에서 교과서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수준 높은 미술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수의 미술 및 미술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교과서의 연구·제작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 나타난 참고 도판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참고도판수	한국	299
	미국	274
	일본	267
참고작품 예시비율	한국	작가와 학생의 작품이 반반으로 실려 있다. 우리나라 작가보다 외국 작가의 작품이 더 많이 실려 있다.
	미국	작가의 작품이 학생작품보다 훨씬 많이 실려 있다. 자국작가의 작품이 외국작가 작품보다 많이 실려 있다.
	일본	학생 작품이 작가의 작품보다 많이 실려 있다.

[표-5]한국·미국·일본 참고 도판수, 참고작품 예시비율

참고도판은 언어적 설명이 나열되지 않아도 도판 하나하나가 풍부한 의미를 산출하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도판으로 설명되는 표현방법과 재료, 용구 등의 사용이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표현 활동의 표준이자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의 중요

33) 책의 저술이나 편찬 따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

성을 감안하여 교과서에 사용될 도판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 및 용구 비교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 재료 및 용구
한국	수채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신문지, 단추, 우유팩, 빈 캔, 재활용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입체 표현시 철사, 디자인 분야는 포스터물감을 주로 사용
미국	불투명물감인 템페라를 많이 사용하며 수채물감, 초크, 크레용, 마커, 스프레이, 마스킹테이프, 오일파스텔, 폴리우레탄 캠코더, 즉석사진기, 컴퓨터,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장치 사용
일본	플라스틱, 브론즈와 같은 과감한 재료와 나무나 짚, 돌등 자연적인 재료가 활용

[표-6]한・미・일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재료 및 용구 비교

미술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는 종이류이다. 이것은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채물감의 사용이 빈번하고, 미국은 템페라물감과 오일 파스텔 등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재료와 용구의 사용에 있어 주의점을 꼭 표기하여 안전한 사용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브론즈, 합판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과감한 재료의 사용으로 진보적인 경향을 띤다. 반면, 대나무, 짚 돌 등 자연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학생들의 자연 친화적 표현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비교적 다양한 표현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주재료는 도화지에 연필과 수채도구, 색연필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유팩, 빈 캔, 신문지등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제작 또한 미술과 실생활이 연계된 표현으로 바람직스럽다. 하지만 좀 더 미국처럼 보다 많은 재료를 사용하면서 표현활동 영역을 넓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재료선택 후 작업 시 재료의 유의사항, 작품제작용구, 용도와 사용법 등을 정확히 표기하고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5) 한국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의 미술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각 출판사의 교과서는 명

확한 성격이 결핍되어 있고, 독자성이 없다. 그것은 일단 엄격한 검정기준에 의해 2종 도서로서 교과서가 통일되고 절대적인 세규에 의해 작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내용이 주로 체험과 표현 위주로 치우쳐져 있고, 적당한 학생수준에서의 참고 작품이 적으며, 미술교과서에 실린 참고 작품을 보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현대예술과 현대작가에 대한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학습내용과 관련된 참고 작품을 보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과 질문을 학습자에게 하는 것은 미술 작품을 볼 때 작품에 대한 비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34]는 역할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현존 작가의 현대예술은 미술 동향과 그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필요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직접적인 감동이나 현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현대성이 학생들의 작품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회화와 조각 부분에만 많은 비중이 치우쳐져 있으며, 교과서의 발문은 지시적이고 딱딱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면, 현실적이면서, 미술의 본질과 기능, 원리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구성의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35]

둘째, 현 시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금의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정보 수집과 처리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 경험적인 표현, 자아실현으로서의 표현, 혹은 감상활동을 위한 탐구적인 능력,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미술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의 매체 활용이 중요하다. 미국교과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현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

34) 김정호,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연구보고서, 2000, p.108
35) 박금숙, [자기주도적 학습력 증진을 위한 초등 미술교과서 대안모형 모색], 200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1

는 컴퓨터, 영상매체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현대적 미술 매체의 소개와 활용도 내용구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조형요소와 원리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와 미국의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미국교과서에서는 조형요소와 원리를 이해하는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조형요소와 원리의 영역이 함께 내용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되어 있다. 조형요소와 원리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미술과 사회', '미술과 과학', '미술과 음악'등 사회·문화와 연계된 내용구성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등 현대적 미술매체의 소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의 표현 능력이 적당한 학생작품과 다양한 경향의 참고작품을 수록해야 한다. 참고작품은 첫째,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둘째로 교과서의 참고 작품을 보면서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주제 및 단원별 학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이 정도의 작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수록되어 있는 학생작품을 보면 객관적인 표현 기술만이 눈에 띄는 경향이 있어 동기를 유발하는 것보다 자신의 표현능력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려고 하는 의욕과 흥미를 잃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작품을 선택 할 때에는 사물의 형태나 구조를 탐구하고 새로운 관점이나 신선한 상상력을 위하여 장애가 되지 않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유일하게 외국학생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우리 교과서도 외국학생의 작품과 뉴미디어를 다루는 현대작가의 작품도 수록함과 동시에, 참고작품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상교과서를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야 한다.

여섯째, 교과서의 발문에 친근한 어휘의 사용과 함께 작품소개와 더불어 작가의 소개, 작가의 작품의도 등을 담아서 작품의 이해를 돕고 동기유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시대에 대응한 분야의 배분이 필요하다. 현재는 회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생활이 다양화되고 디자인이나 타 분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회화의 명작만을 논하는 것보다 시대에 대응한 분야의 배분이 필요하다.

2) 미국

(1) 미국의 중학교 미술과의 교육목표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이름 그대로 50개 주가 모인 공화국이며, 한국과 달리 초-중-고등학교의 미술교육이 정책적으로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각주의 실정에 따라 교육방침이 계획, 수립되어 있다. 미국은 1870년 초등학교에서 도화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면서 공식으로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NAEA(National Art Education Assiociation)에 의해 개발된 국가미술교육기준에 따라 미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가장 유력한 기준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교육협회의 교육목표의 미술창작, 미학, 미술사, 미술비평의 4가지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미술은 창작 영역으로 미술 활동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창조적 사고를 하고, 느끼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매체를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둘째, 미학은 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미술작품이나 자연 환경이 지닌 미적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학습활동이다. 즉, 시각적인 관찰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표현 특성을 인지하고 미적인 반응을 할 수 있으며, 지각개념과 이해로 시각화를 도와준다.

셋째, 미술사는 미술작품이 지니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미술의 의미를 관찰하고,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시대별·양식별 미술작품의 특성을 이해하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학습 활동이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준다.

넷째, 미술비평은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 이해 및 비판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미술 작품을 선택하고 가치 판단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이것으로 보아 미국의 미술교육은 어느 한 분야에도 치우치지 않고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기 즉 표현활동에만 비중을 두었던 전통적인 미술교육에서 벗어남을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21세기 미술교육은 “Art Education Means Global Understanding (미국 미술교육은 지구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는 대전제 하에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자아의 과거와 현재 세계, 상상한 미래의 현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규범 등에 대한 특별한 지식, 통찰력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예술적 표현이 생각, 경험,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논하고 이를 글로 서술하기도 한다. 미국의 미술교육은 미술과 일상생활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생활중심의 이슈를 이해하려는데 더 초점이 주어진다.[36]

(2) 교육과정

NAEA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은 여섯 개의 내용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개의 학년군별(유치원~4학년, 5~8학년, 9~12학년)로 각 단계의 성취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주당 수업 시수는 주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2시간 내외로 구성된다. 워싱턴 주의 경우 1학년은 1.8시간, 2~3학년은 1.5시간, 4~6학년은 1.7시간이며, 7,8학년에서는 전체 수업 시간의 최소 85%를 읽기/언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보건, 체육의 기본 기술 영역을 가르치는 데에 할애하게 되어 있다.[37]

(3) 미국 미술교과서의 구성체제와 특징

미국의 미술교과서는 각 주마다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며,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교과서는 학습 자료로서의 활용도 역할을 할 뿐이며 교과서 보다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비중이 더 큰 편이다.[38]

---

36) 박정애, [포스트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시공사, 2001
37) 이용숙, 앞의책, 1994
38) 박소영 외, 미술교과용 도서의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6

미술교과서는 15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원에 4~8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총 81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	소단원
소묘	소묘를 위한 소재, 소묘방법, 소묘재료, 소묘의 개념탐구, 새로운 기법
판화	판화방법, 재료, 판화의 소재, 판화 디자인, 다색판화, 스텐실, 드라이포인트, 단색판화, 판화의 다양한 응용
조소	조소개관, 점토로 만들기, 추상적인 조형물 만들기, 석고뜨기, 과학과 연결학습
공예	공예를 위한 아이디어, 공예디자인, 도자기공예, 모자이크, 가면 만들기, 보석공예, 섬유공예
건축	건축의 세계, 점토로 건물 만들기, 점토조각으로 공예품 만들기
페인팅	페인팅의 시각적 요소, 스케치, 색에 대한 연구재료와 기법, 새로운 기법
그래픽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개관, 로고디자인하기, 만화그리기, 포스터만틀기, 삽화그리기, 국어와 연결학습
사진,영화,비디오,컴퓨터	사진의 세계, 포토에세이, 영화의 세계, 무선영화 제작하기, 비디오와 컴퓨터, 멀티미디어 제작하기
미술의세계	미술의 기능, 미술의 다양성, 미술의 표현재료, 주제와 테마, 미술디자인, 미술양식, 미술의 기초적개념 요점정리
미술 즐기기	미술 이해하기, 미학에 대한 소개, 종이 찢어 내얼굴 표현하기, 국어와 연결학습
미술가로서의 직업세계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디자인, 순수 미술가, 공예가, 예술평론가와 서비스, 직업의 세계에 대한 연구
예술작품을 보고 토론하기	미적인식,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보고 디자인하기, 작품을 보는 방법, 미술이론 비평, 미술이론 활용법, 비평의 유사점과 다른점, 명 작품이란 무엇인가?
1900년 이전의 미술사	고대 미술세계, 근대 미술연대. 1900 이전 미술사, 직업과 미술사
20세기 미술사	1900-1950년대 미술, 1960년에서 현재의 미술, 20세기 미술
세계의 미술사	라틴아메리카, 원시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대양, 인디안,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이슬람, 현대 미술의 기초적 유산

[표-7]미국 중학교 미술과 교과서 구성내용

각 대단원 별로 도입부분에 학습목표와 배울 미술용어를 정리해 놓았고, 학생들이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포트폴리오 아이디어(Portfolio

Idea)를 제시한 것도 특이한 사항인데 미국 중학교에서 미술의 평가방식이 포트폴리오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마지막 부분에는 형성평가가 제시되어 있으며, 배운 내용을 수학, 과학, 국어, 역사 등 다른 교과서와 연결하여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소단원마다 배워야 할 내용과 어떤 학습활동을 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를 꼼꼼히 제시하고 있고 재료의 주의사항 및 안전한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활동도 제시해 주고 있다. 교과서의 뒷부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부록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미술용구 및 재료의 사용법, 두 번째는 교과서 도판의 수록된 예술가의 프로필 소개, 세 번째는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고, 네 번째는 교실에서 소화할 수 없는 표현활동을 추가로 제시하여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심도 있게 표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로 다른 곳에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자세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져 있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미술교육을 살펴보면 학생을 위한 미술교육프로그램 뿐 아니라 미술교사를 위한 교수법과 다양한 학습지도안 형식의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Incredible art Department를 들 수 있다.

인터넷 미술교육 사이트	Incredible art Department
교사를 위한 페이지	· 13개 부분으로 나주어짐 · 교사를 위한 페이지와 학생을 위한 페이지로 나뉨 · 다른 미술교사와 교류할 수 있는 이메일, 블로그 소개 · 화가들의 미술작품을 소개, 학생과 교사의 미술협회를 권장함 · 교수법, 수업활동계획서, 비평자료, 교실관리통제, 교육법 등 소개
학생을 위한 페이지	· 실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토대로 학생들이 미술의 여러 주제에 대해 연구해야하는 글이나 자료가 모여 있다.

[표 8]미국의 미술교육 인터넷 사이트

이 외에도 Mcrel는 교육에 적용되는 연구, 제품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Visual art 영역에서는 미술사에 대한 자료, 미술 연계자료, 회화작업실에

관한 자료, 박물관 수업에 관한 자료, 미술작가에 대한 연구, 미술관이 있는 주요 도시, 역사가 깊은 세계적 단체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있다. Moma Museum Education 미술관에서는 학생들과 교사, 원격교육, 가족 프로그램, 성인프로그램등 다양하게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술관의 예술품을 보고 감상하는 법, 올바르게 작품을 보고 비평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3) 일본

(1) 일본의 중학교 미술과의 교육목표

일본의 중학교 미술의 목표는 '표현 및 감상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미술 창조 활동의 기쁨을 맛보아 미술을 애호하는 심정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감성을 풍부하게 해, 미술의 기초적 능력을 펴, 풍부한 정서를 기른다.'로 제시되어 있다. 전국에서 거의 똑같은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는 수업의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수업의 길잡이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술을 지도하는 많은 교사 및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일본 중학교 미술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39]

그림과 조소등 표현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기르며 표현능력을 길러준다. 디자인, 공예 등의 표현으로 발상을 풍부하게 하며, 목적과 조건에 적응하는 제작능력을 기른다. 감상활동을 통해 작품 내면성의 뜻과 자연의 조형성에 관한 아름다움에 관심을 넓혀준다.

일본 중학교 미술의 학년별 교육목표는 1학년과 2·3학년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학년은 첫째, 즐겁게 미술활동을 하고 풍부한 생활을 창조하는 의욕과 태도를 기르며, 둘째, 대상을 관찰하고 발상 및 구상하는 능력과 기초적 기능을 몸에 익혀 다양한 표현방법과 조형요소에 관심을 갖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

39) 김정, 전게서, 예경, 1993, p.414

째, 자연,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나 견해를 넓혀 감상능력을 기른다.

2·3학년의 목표는 첫째, 주체적으로 미술활동에 임하여 미술을 애호하는 마음을 깊게 하고 풍부한 생활을 창조해 나가는 의욕과 태도를 높인다. 둘째, 대상을 응시하는 힘, 감성이나 상상력을 한층 높여 독창적·종합적인 가치관을 길러 표현방법을 창의적으로 연구하여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자연, 미술작품이나 문화유산 등에 대한 이해와 견해, 혹은 보는 자세를 갖게 하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상능력을 기른다.

(2) 교육과정

일본의 미술과 수업은 소학교의 '도화 공작' 중학교의 '미술' 고등학교의 '예술'로 구분되어 있다. 중학교 주당 수업 시수는 50분 수업으로 1·2학년의 경우는 2시간씩 연간 70시간, 3학년은 주당 1시간씩 연간 35시간을 배당하고 있다.

(3) 일본 미술교과서의 구성체제와 특징

일본의 교과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바뀌었고, 1952년 중학교 도화 공작 검정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3년마다 혹은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되거나 발행되고 있다. 현재 일본 미술 교과서는 일본문교출판사, 광촌도서, 개륭당 3종을 발행하여 사용한다. 그중 일본문교출판사에서 제시하는 영역을 알아보면, '그림과 조각', '디자인·공예', '감상' 등으로 크게 3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원 분포도는 디자인·공예는 35.3%, 회화30.0%, 감상22.6%, 조소6.8%, 이해5.3% 순으로 되어있다.

일본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단원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40]

40) 현지승,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4 p.58

영역		1학년	2,3학년 上	2,3학년 下
표현	그림·조각	· 스케치의 즐거움 · 보는 것의 훌륭함 · 느낌 그대로 · 마음에 남는 정경 · 떠오른 이미지 · 판에 표현하는 즐거움 · 조각의 즐거움	· 만화로 하는 표현 · 공간과의 대화 · 보는 방법을 바꿔서 · 이미지의 넓음 · 마음의 스케치 · 생가의 표현 · 표현하고 싶은 장면 · 인품이나 성격 나타내기	· 시대나 사회 속으로 · 자기를 쳐다보면서 · 기억에 남는 일상 · 메시지로의 미술 · 합성된 이미지 · 색과 형태의 조화 · 동물들과 함께 · 공동공간과 입체조형
	디자인·공예	· 흙과 불꽃이 새로 만들어 낸 모양 · 노는 마음으로 하는 창조 · 불가사의한 시각의 세계 · 즐거운 메시지 · 생활에 편리한 디자인 · 색의 넓음, 색의 매력 · 자연을 살려서	·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으로 연출 · 아이디어를 살려서 ·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 · 전하려는 것이 중요한 일	· 영상표현의 넓음 · 종이의 특성을 살려서 · 공간 표현의 불가사이 · 정보를 전하는 색과 형태 · 함께 만드는 추억 · 지역 환경의 디자인
감상		· 4점의 해바라기 · 기쁨과 슬픔의 형태 · 미술작품과의 만남 · 그리는 즐거움/세계의 친구들	· 생활과 디자인 · 나무에게 부탁하는 마음 · 서양을 매료시킨 우끼요에 · 다양한 인간의 표현 · 일본 미술Ⅰ-꽃 모양 · 일본 미술 Ⅱ-역사와 전통	· 르네상스의 매력 · 디자인의 발생과 전개 · 아시아의 미의식 · 현대 미술의 개척자 · 미술은 어디로 가는가

[표-9]日本文敎出版의 중학교 미술교과서 내용구성

각 단원의 제목 옆에 학습목표가 제시되어있고 밑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작가의 말'이라는 코너를 통하여 참고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미술교과서에서 1학년 표현영역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자연물, 풍경, 이미지를 관찰하여 표현하고 2·3학년은 일본만화와 디자인을 고·근·현대 미술의 특징에

서 찾고 있으며 전통적인 서양화법에서 탈피를 꾀하면서 평면에서 공예, 디자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또한 일상의 풍경을 생활과 밀접한 정경으로 시점을 이동하였으며 내면 탐구를 통하여 사회적 의미로 확장하였다. 감상영역을 살펴보면, 1학년은 서양과 일본미술을 하나의 주제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박물관, 작품감상을 설명하였으며 일본 전통 문화의 이해와 함께 각국의 미술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 2·3학년의 감상영역은 회화, 디자인, 목공예 등을 설명하면서 일본 전통문화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인터넷 미술교육을 살펴보면,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중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가 있다.

인터넷 미술교육 사이트	文部科學省

[표-10]일본의 미술교육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

이곳은 정부에서 교육, 학예, 종교 등을 다루는 관청이며, 중학교 단계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 주고 교육을 통해 안내해 준다. 미술과목은 다른 과목이나 외국에 비해 활동 영역이 넓지는 못해 온라인 미술교육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

4. 중학교 미술교육의 발전과 개선방향

중학교 미술교육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1) 이론의 재정립·의식개혁 필요

우리 사회일반에서나 학교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예술 및 예술교육에 대한 생각자체를 바꾸는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예술을 단순한 유미주의나 건축·공예·디자인 등의 효용성에 추가되는 장식 정도로 취급하는게 현 실상이며 교육 및 예술교육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관념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예술은 효용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그 존재의 이유지만 근원적으로 미적 가치가 근본이다. 효용적 가치는 풍요와 편의에 봉사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적 가치가 가져다주는 부수적인 효과이며, 미적가치는 도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또는 작가에 따라 수많은 가치관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규명하고 탐구하는 것을 우리는 미학 또는 예술학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뚜렷하고 공감대가 높은 차원의 미적인 가치관이 필요하다.

예술은 어느 한두가지 특성에 의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고 풍부하고 섬세한 존재로써 어떤 대상을 생각한다. 따라서 살아있고 다면적이고 변화로운 독특한 존재로 인물, 풍경, 사회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은 예술자체에 대한 원만한 생각이 필요한 것이다. 즉 예술 교육에서 존중해야 할 온전한 예술경험의 관념이 예술교육에서 폭넓고 원만하게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하고 폭 넓은 예술의 존재양식을 두루 포함하는 온전하면서도 살아있는 예술교육이론을 구성해야 한다. 의식개혁운동으로는 예술을 더 이상 소유지향의 개념으로 인식하지 말고 존재지향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예술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인식을 바꾸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다운 아름다움과 참다운 창의를 목표로 하는 인간회복, 미래개혁을 위한 예술교육임을 재인식하도록 사회와 교육계의 왜곡된 의식을 바로잡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관련부서들과 전문가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여 의식을 개선하고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고 새로운 사업의 방향을 조정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2) 미술교과 활동 수업시수의 확보·대학입시 개편

중학교 미술수업이 1·2학년에는 주당 1시간, 3학년의 경우 2시간을 지도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의 과목들은 최소 102-170시간으로 되어있다. 이는 미술교과 수업시수의 확보 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일선의 중학교에서는 1학기당 각종행사들(소풍, 체육대회, 개교기념일, 수련활동)을 제외하면 26~28시간 정도인데 현행 교과과정(실기 80%, 이

론 20%)에서 적어도 실기시간은 주당 3시간은 소요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의견이나 지금의 실정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형태가 공식화 합법화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런 법정 미술시간을 잘 지켜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도에 어려운 점이 많다. 중학교의 경우 주당 45분 수업에 출석을 점검하고, 제재에 대한 동기화를 하고나면 30분쯤이 남게 된다. 남은 30분 동안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활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학생들은 실기 작품을 단원 내 수업시간에 끝내지 못하고 집에서 완성해 오는 경우가 많다. 감상과 실기를 3:7 정도로 해서 표현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이 예술과의 기본패턴이라고 보면 처음부터 시수 확보가 안 되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교육과정, 형식적인 시간표 운영, 형식적인 시험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중학교 미술교육의 실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는 자꾸만 축소되어 지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이는 학생들이 미술교과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미술교사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서 창의성이나 예술면에서 제대로 준비된 학생을 선발 교육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 즉 교육부나 고등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고등학교 이수자격 국가시험을 치르고 대학은 그 나름의 특성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대학 입시를 주관하여야 한다. 현재처럼 학생과 대학의 적성이나 특성을 무시한 채 수능 성적이나 석고데생, 구성, 조소, 동양화 기초 같은 단편적인 지식과 기계적인 손기능 중심의 미대입시 과목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미술 학습환경 개선·시각커뮤니케이션 영역 토론부분 활성화

현재 학교마다 미술실이 있다고는 하나 이젤이나 교구·교재를 보관하다 보면 40-50명의 학생들이 실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비좁아 미술활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그리기 수업이 아닌 조형활동을 하려면 좁은 공간으로 인해 여러가지 재료의 선택에 제약을 받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술실에서의 미술활동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여러 다양한 미술활동을 체험하

고 미술을 대상으로 한 놀이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독특한 미술관을 만들어 공간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학생들은 모든 여가를 PC방이나 비디오, 영화, 만화. CD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시각적인 경험을 미술수업시간에 하나의 주제로 놓고 토론을 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풍부한 참고자료와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각적인 이미지에 대한 해득력이 늘어날 것이며, 자신의 시각적인 체험영역을 반성하게 함으로써 미적 판단력을 기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4) 예술교육의 실천구조를 개편

우리나라의 예술진흥정책과 예술교육 전담기구가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 규모나 예산도 지금보다 대폭 확대 되어야하고 인적자원이 고도로 전문화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도 현재 교육부에 예술교육 관련 전문·전담 부서나 인원이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교과서를 만들던 편수관마저 없애버리고 통째로 공백상태로 30년이 넘게 지나오는 동안 예술교육의 그 본연의 본분도 잃어버린 것이 오늘의 예술교육의 행정이다. 이 점을 시급히 개선해서 전담부서와 직무담당을 중앙부서-지방교육청-지역(시·군)교육청 순서로 체계적으로 조직·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예술교육이 제자리를 잡아야 어른들의 예술문화가 정착되는 길이 열리고 예술문화의 발전의 효율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도 개혁해야 하는데 7차 교육과정이나 그 이전의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것은 전 근대적이고 지식위주의 교육목표·내용·방법이었다. 이제는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예술문화를 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풍부하고 폭넓게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해서 관심 있는 어떤 영역을 스스로 밀도 있게 파고드는 탐구중심의 예술과정으로 기본 성격을 대폭 바꿔야 한다.

5) 다양한 안목의 교재 선택, 표현활동을 체험

한국·미국·일본의 종합적인 교과내용을 비교하면 미국은 학문기초 미술교육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강조해오던 미술제작(표현)영역 뿐만 아니라 미학, 미술비평, 미술사 등의 이론적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고 미술의 기본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도 각각 하나의 단원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건축과 새로운 영상매체에 대해서도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교과서의 내용분량자체가 적지만 회화·조소 영역 못지않게 디자인·공예 영역의 비중이 높고 현대 산업사회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디자인영역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미술교재의 선택은 향토적이며 생활적이고 창의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 미술과 학습지도에는 교재를 통한 교사의 의도가 학생들에게 자극되어 학생들의 능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으며, 교사의 의도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개되고 예상한 의도대로 반영되어 나가는 수업이 좋은 것이다. 표현활동에 있어서는 데생이나 사생화 등 묘사위주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상상적인 표현, 사실적인 표현 등 다양하게 지도되어야 한다.

6) 이해·감상중심 학습으로의 개선

미술교육은 단순히 자유로운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실기 중심의 미술수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오히려 감상이나 이해 교육이 표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 활동은 결국 미술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41] 지금까지 미술교육 과정은 창의성 중심에 치중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역할을 자유방임으로 흐르도록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42] 또한

41) 전성수, [현대미술교육의 배경과 정당화에 대한 탐색], 미술교육 제6호 한국미술치료학회, 1996, p.29
42) 김건선, [미술교육과정의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5, p.12-13

자유로운 표현을 통한 창의성 계발이라는 이름으로 방임에 가깝게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은 장기간의 미술교육을 받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술은 어려운 것',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즉, 표현 중심의 미술교육은 표현을 하면서도 미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재로 양성할 수 있으므로 중·고등학교의 미술교육의 폐해로 이어지고 특히, 미술대학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미술교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작 사설학원에 소개하는 정도라는 현실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미술교육은 대부분이 표현과 감상이 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입시준비를 위한 교육에 치우쳐 실기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나 비록 실기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기교중심의 기능적 실기지도에 급급하여 비개성적인 기법의 전수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 많다. 또한 일부 주관적 소신주의에 빠져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취향위주로 교육과정을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많다.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르는 다양한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켜 주면서 직관적인 감성을 길러주고, 조형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교육과정의 전 영역에 걸쳐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표현 중심의 학습에서 이해 ·감상중심의 학습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미술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물의 표현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세련된 지적능력과 판단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즉 미술은 마음을 발달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성인 생활을 위한 기반을 닦는 중요한 시기이자 성인으로서의 중요한 준비기, 과도기이다. 또한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21세기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주체이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의 미술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청소년기의 미술교육의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서 '청소년'이라는 개체의 양면적 특성과 더불어 다양한 개인차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지도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미술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는 신체의 변화에 의한 생식능력의 획득, 새로운 사고방식과 인지적 능력의 확대, 자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독립하려는 심리적 이유가 일어나며, '자기에 대한 새로운 탐색기'로서 독자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 확립해가고 자신의 본질적인 인격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정서변화가 심하며 성취해야 할 발달과제가 많아 여러가지 적응상의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청소년기 심리적 부적응으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안장애, 우울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학업성적에 집착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많은 좌절감과 실패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타나며, 충동적인 자살 행동으로 자신의 절망이나 좌절, 분노, 소외감, 무력감 등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미술교육의 바탕위에 치료적인 접근을 하여 그들이 가진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미술로 표현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표출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들에게 문제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한 문제해결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아동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즉흥적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수준 높게 사고하는 기술을 발달시키려고 한다.

청소년기의 미술교육은 모든 제반의 미술교육을 통하여 삶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시각 환경을 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삶을 더욱 아름답게 바라 볼 수 있게 도와주며, '예술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특수한 기능을 길러 미술의 장인(匠人)이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감상을 하는 미적 경험을 갖게 하여 예술가적 품성이라고 생각되는 미적 감수성, 정서, 시각적 사고, 조형능력 등을 신장시켜줌으로써, 자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논리적 인식이나 과학적 사고력에 치중함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심리적, 결핍을 막고 미적안목을 육성시키며, 자아표현을 통해 개성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심미감을 육성하여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즐겁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전인적인 인간육성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표현을 통해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자신에게 쌓여있던 내면의 감정들을 표출해 냄으로써 정서를 순화하고 함양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미술은 강력한 자아표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남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변화되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그에 따른 매체가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하고, 미적인 안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이해, 표현, 감상의 통합적인 지도가 전개되어 교사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수법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창의성과 조형능력도 동시에 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을 왜 배우는지, 미술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미술교육의 목적의 설정은 교육목표와 내용의 선정, 교육과정의 개발 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미술교육의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미술교육은 미술대학 또는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통해 미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을 경험 하도록 하여 누구에게나 다 잠재하고 있는 예술가적 품성과 창의성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술교육을 통해 청소년 자신을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또한 사회와 문화를 올바르게 수

용하고 이해하는 통로를 열어 올바른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중학교 미술교육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이 일주일에 1.8시간에서 2시간을 평균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중학교 미술교과 수업은 턱없이 부족한 수업시수로 인해 청소년들이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1시간 2·3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2시간 정도이다. 45분 수업에서 학습목표와 미술활동을 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나면 30분정도에 학생들은 작업을 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미술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과정면에서 수업시수가 극히 적고 그 운영의 실제도 지극히 부실하며 미술실의 공간 부족, 시설, 설비가 불충분하고 입시경쟁으로 인한 평가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수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수업시수 뿐만이 아니라 미술교과서의 개선도 필요하다.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구성의 개선이 요구되며, 현 시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법의 매체 활용과 조형요소와 원리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보강되고 다양한 학생작품과 참고작품을 수록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입시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서 창의성이나 예술면에서 제대로 준비된 학생을 선발 교육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미술교육은 청소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미적인 안목을 육성하고 조형능력을 신장시켜, 창의성의 개발, 감성의 함양과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에서 필수교육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창법, 쉴러의 미학과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2.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 한국 교과 교육과정의 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3. 김동연, 유아의 특수 교육, 진아출판사, 1987
4. 김민곤, 어린이 조형활동 창조, 미술세계, 1985
5. 김성숙 외,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2003
6. 김정희,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7. 김춘일, 미술교육론, 혹익신서, 1985
8. 김혜숙, 미술과 교육: 미술 교육학원론, 1998
9. 노영자, 이인숙, 중학교 미술 1, 교학사, 2000)
10. 로웬펠드. 브리테인,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2001
11. 에드워즈 강은엽 역,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그리기, 크로바출판사, 1986
12. 연문희, 청소년이해와 지도, 한일, 1992
13. 이규선 외5인,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2000
14. 정대현 외, 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15.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
16. 한상철, 청소년학, 학지사, 2004
17. 함종한, 청소년학원론, 상조사, 1992
18. 김영란, 고등학생의 우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9. 박지혜, 한국 중학교 미술교육과 외국 중학교 미술교육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2007
20. 서동구, 우리나라 자살사망의 현황과 정신보건센터의 역할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 프로그램워크샵 자료집, 2003
21. 유혜경, 문화의 세기를 지향한 예술교육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2000
22. 전영주.이숙현, 청소년 자살구상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003
23. 조성진 등 한국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증상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2001
24. 최선영, 한・일 중등학교 미술교과서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대구대학교, 2004
25. 현지승,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4
26. 한국교원대학교 예술교육 연구소, 21세기 예술교육의 위상과 역할, 제5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1997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술교육	학 번	20058093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박 상 미 한문: 朴 相 美 영문: sang mi Park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90 - 11				
연락처	011-9617-7161 E-MAIL: sculptor00@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청소년기 중학교 미술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Necessity to Reinforce Art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2월 일

저작자: 박 상 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